

“조영남 ‘대작(代作)’ 법적문제 없다”

“콘셉트 확실하면 미술계 관행”

‘대작(代作)’ 논란이 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의 ‘화투그림’은 관행일까, 사기일까.

일단, 진중권(53) 동아대 교수의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 맡기는 게 일반화한 관행”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국내 유명화가들도 조수를 두고, 작품을 제작한다.

진 교수 말처럼 엔디 위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고 자랑하고 나섰다. 미니멀리스트나 개념미술가들도 실행은 철공소나 작업장에 맡긴다.

핵심은 ‘콘셉트’다. 작품의 콘셉트를 누가 제공했느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진다고 했다.

진 교수는 “콘셉트를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문제 없지만, 그 콘셉트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라고 했다.

한 미술평론가는 “조영남 대작은 법적 문제는 될 게 없다”며 “작가의 작품이 어떤 콘셉트로 제작됐는지가 중요하지, 제작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조영남이 콘셉트(아이디어)를 제공, 제작의뢰를 했고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사인했기에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가의 정체성이 담긴 개념적 콘셉트는 건축물의 설계도, 연주되는 곡의 악보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술계는 이를 계기로 예술작품에 대한 대중 인식의 확신이 이뤄질지 기대



하고 있다. 단순히 유통수단의 완성된 상품으로써의 작품을 넘어 예술가의 창의적 발상과 콘셉트부터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작품당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진중권 교수 역시 ‘작품 땅 공익 10만원’을 문제 삼았다. 너무 저렴했다는 지적이다. /이성주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런티어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프런티어를 6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리프런티어는 소리축제 대표 공연 프로그램으로 한국 창작국악 및 월드뮤직 팀들의 창작력을 북돋고 세계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젊은 아티스트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신청은 한국 창작국악 및 월드뮤직 단체인 장르를 불문하고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요건은 전곡 창작곡으로 30분 이상 공연 가능한 단체에 한하며, 미발표곡 및 2015년 발표곡 보유단체를 우대한다.

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와 함께 단체 소개, 공연프로그램, 음원 또는 영상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최종 선발된 팀에게 2017 네덜란드 아메르스포트 제2 앤 월드뮤직 페스티벌, 대만국제예술중심과 같은 세계 유수의 뮤직페스티벌에 참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그 외에 흥대 벨로주 국내 공연 기회와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창작지원금은 1등(KB 소리상)수상 팀에게 일천만원, 2등(소리축제상)수상 팀에게 오백만원, 3등팀(프런티어상)에게 삼백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32-9398.

한편 15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9월 29일~10월 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고창군민 웃음 털러 온다

내일 문화의전당 무대 올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 ‘늘근도둑이야기’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늘근도둑이야기’는 소극장 특유의 장점을 잘 살린 작품으로 현시대를 유쾌하게 풍자하면서 배우들의 입담과 열연이 더해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대표 시사회미디 연극이다.

‘늘근도둑이야기’는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난 ‘더늘근 도둑’과 ‘덜늘근 도둑’이

‘높으신 그 분’의 미술관에서 금고를 털러다 실패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작품 속 ‘두 늙은 도둑’이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돌직구는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꼬집으며 익살스런 웃음은 물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번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는 브라운관과 스크린, 무대까지 종합무진 중인 명품 배우들이 출몰한다.

‘늘근도둑이야기’의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는 배우 박철민을 필두로 탁월한 소연심과 코믹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노진원은 ‘더늘근 도둑’역으로 활약

한다. 그리고 수사관 역은 드라마 ‘피노키오’, ‘육룡이 나르샤’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배우 민성욱이 맡았다.

‘늘근도둑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애드리브라고 할 수 있다. 매 공연 감탄을 자아내는 촌철살인 도둑들의 민담콤비, 배우들의 입담과 열연으로 100분을 꽉 채우는 에너지가 관객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gocd.kr>)나 문화의전당(063-560-80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고교생 백일장 대회

28일 전북대 최명희홀에서

(재)목정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전북 고교생 백일장’ 대회가 28일 9시30분~5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최명희 홀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전북 문화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갈 고교생 문제 양성과 대한 지역 문단의 바람과 선배들의 훌륭한 문학 혼을 지키고 이어가려는 취지로

백일장은 9시 30분 전북대 인문대학 교정에서 문문과 산문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1시30분부터는 최명희 홀에서 김경희 수필가의 ‘문학을 어떻게 접근 할까?’를 주제로 한 문학특강과 시상식이 잇따라 열린다.

시상은 운문·산문 부문 장원에게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모두 30명의 학생과 2개 학교에 820만원의 상금과 상품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개인과 단체 모두 가능하며, 대상은 전북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선착순 5백 명이다. 접수기한은 24일까지.

문의는 전화 284-0570 또는 메일 jonjunbunbil@nate.com로 하면 된다.

이 대회는 (사)전북작가회의와 (사)전북문인협회가 주관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정해은 기자

어린이 창작국악극 ‘내 감정은 소중한요’

21일 오후 6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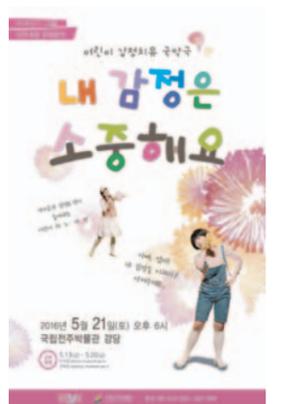
어린이 감정치유 창작국악극 ‘내 감정은 소중한요’가 오는 21일 오후 6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공연은 어린이들의 희로애락을 국악동요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다.

‘기쁜 감정은 사랑맛과 예쁜 새소리처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화난 감정은 열을 세고 호흡을 해서 방귀도 똥하고 똥 밖으로 내보내도록, 슬픈 감정은 바다여행을 다녀오는 듯 충분히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즐거운 감정은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다.’라는 내용에 2현·25현 가야금의 선율, 소고와 장고 등의 악기가 어우러진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아이들에게는 감정의 소중한함을 일깨우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 세상을 바라보고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람 신청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jonju.museum.go.kr)에서 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한다. 공연은 무료. /정해은 기자



‘지금 바로 떠나는 아이랑 국내 여행’ 출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다. 어딜 가야 아이가 좋아할까, 무엇보다 엄마·아빠에게도 즐거운 여행이 될까. 예쁜 사진도 남기고, 좋은 추억을 쌓아주고 싶은데 쉽지 않다.

‘지금 바로 떠나는 아이랑 국내여행’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를 위한 안내서다. 지은이 이수진은 아이를 낳고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아기와 유모차를 챙겨 여행을 떠났고, 때로는 극기 훈련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여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책은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 제일 손

이 많이 가는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여행지와 교통편을 정하고, 일정을 짜는 여행 전 과정은 기본이다. 이유식을 준비하고 아이의 입맛에 맞는 지역 음식을 찾는 세세한 것까지 모두 다룬다.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부산·제주 등 지역별 여행지 53곳과 계절별 추천 여행지, 나이별로 경험시켜주고 싶은 여행지, 박물관·동물원·동물체험·휴양 등 목적에 맞춘 여행지를 모았다.

이 외에도 지은이가 아이와 함께 하며 꼼꼼하게 기록한 여행지에서의 트러블 해결법 등이 예시형식으로 실렸다. 380쪽, 1만5000원, 니들북. /이성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18일)

<p>▷쥐띠 46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중간에 막힘이 따르는 운. 72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바라지 마라. 84년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좋지 못한 운이니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할 것.</p>	<p>▷소띠 49년생: 다른 사람과 구설수 시비수가 발생할 수 있다. 6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73년생: 윗사람과의 화합에 좋은 운. 85년생: 모임이나 모임, 함께 활동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과의 다툼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상대방과 불화 예상.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임이 이익이 있다.</p>	<p>▷토끼띠 51년생: 적대적이었던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63년생: 시비가 따르다.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는 불리하다.</p>
<p>▷용띠 52년생: 나를 위한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면 공이 돌아온다. 64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76년생: 투약을 나타낼 수 있는 운.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준다.</p>	<p>▷뱀띠 53년생: 결과 속이 다르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야.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져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언행에 주의하라.</p>	<p>▷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운. 78년생: 사고수와 질병수가 따르니 문전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고 미루었다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라.</p>	<p>▷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 67년생: 언행에 주의해야 하겠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이니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게 되니 마을 쓰지 마라. 91년생: 금전운이 약하다.</p>
<p>▷원숭이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80년생: 먼저 배플면 베풀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p>	<p>▷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마라.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 따뜻하게 보하는 음식을 섭취하라.</p>	<p>▷개띠 46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58년생: 틀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0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2년생: 온전은 가끔씩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며 외부의 호응도 얻게 된다. 5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83년생: 윗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p>